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2월 16일(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대통령,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발표 -
- 16년 만에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유연하고 역동적인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간 벽허물기 당부 -
-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세종-청주 간 CTX 적격성 조사 착수, 대덕 제2연구단지 조성 추진 등 대전을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6, 금)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부장학금 규모를 1,300억여 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대통령은 또한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6개 출연연(부설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났게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출연연이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출연연 간 벽을 허물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나 조직·인사 운영체계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도시 개방성과 연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전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세종의 행정기능과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임기 내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제1단지와 함께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을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과 대전시가 협력하여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 점프!',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라는 3가지 주제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출연연 연구원, 기업 대표, 대전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이 연구에 미칠 영향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역동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